

붉게 물든 백양사, 가을 선율에 물들다

내달 1일 '제1회 백양사 얘기단풍 페스티벌'

단풍 관광·음악 어우러진 색다른 복합문화형 사찰 축제
'자연과 禪', 마음 비우고 노래로 다시 채우는 소중한 시간

알록달록 단풍이 지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 가을빛으로 물든 장성 백양사에 음악이 울려 퍼진다.

'2025제1회 장성 백양사 얘기단풍 페스티벌'이 오는 11월1일 백양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백양사가 주최하고

장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가을 단풍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형 가을 축제'를 주제로, 고즈넉한 사찰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예술의 장이 될 예정이다.

백양사는 백암산 자락에 자리한 대표 사찰로, 단풍철이면 '얘기단풍'이라 불리는 작고 고운 잎이 사찰 일대를 붉게 물들인다.

백암산의 단풍은 잎이 작고 색이 유



김종연



나상도



'트로트 미스코리아' 박성연

난히 선명해 아기 손을 닮았다 해 붉은 이름이다.

특히 백암산 백학봉의 모습을 담은 쌍계루 연못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단풍 명소로,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바로 이 시기에 열려, 붉게 물든 단풍과 음악의 선율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



가을 백양사 풍경

대로 가을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단풍 사이를 거닐며 들려오는 선율은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고, 방문객들은 눈과 귀로 계절의 풍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단풍 관광과 음악 공연을 결합한 복합 문화형 축제로, 자연의 정취 속에서 힐링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감성 짙은 가요·팝 공연이 펼쳐진다.

'올림프렌즈'로 함께하는 조연호·윤성·박시환·손진욱이 무대에 올라 가을의 서정을 담은 선율로 관객들의 마음을 물들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트로트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인 김중연, '미소천사'로 불리는 나상도, 트로트 미스코리아 박성연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고즈넉한 산사에 울려 퍼지는 대중음악의 선율이 색다른 매력을 더한다.

이밖에도 행사장에서는 전통공예, 먹거리, 포토존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한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드는 계절, '자연과 선(禪)'이 어우러진 사찰'로 손꼽히는 백양사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단풍 관광에 문화예술을 더해, 백양사를 대표하는 가을 브랜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 얘기단풍은 한 해의 마지막 색을 피워내는 자연의 예술"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노래로 다시 채우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백양사 단풍은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자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사찰형 음악축제를 통해 지역의 가을 관광이 한층 풍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디지털 고해소

가운의 케빈스상책



우리는 하루에도 수 차례 거짓말을 한다. "잘 지내요.", "괜찮아요.", "읽었어요."

익숙한 말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날이 많다. 그 말은 타인을 위한

배려처럼 포장되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자기기만이다.

심지어 익명으로 답할 수 있는 설문조사조차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멀쩡해 보이고 싶어 한다. 이것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다.

타인 앞에서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 앞에서 더 정직하지 못한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괜찮은 사람'의 껍질 안에 감정을 눌러 담는다.

화가 나면 기쁨도 줄어든고, 슬픔을 참으면

설렘도 마비된다.

몸은 그저 '참는 법'만 배운다. 울어도 안 되고, 드러누워도 안 되고, 약해 보여서도 안 된다.

사회화란 결국 '몸의 억압'을 학습하는 과정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억압은 언젠가 감정을 잃어버린 표정, 무뎠던 감각으로 되 돌아온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문득 혼자 있는 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검색창 앞에 조용히 속삭이듯 고백한다.

"슬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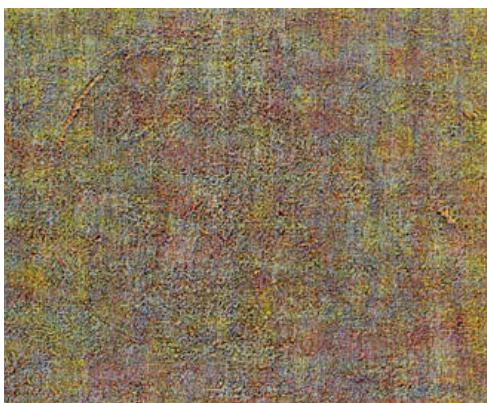
"사람들이 짜증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제 사람들은 감정 없는 AI 앞에서 오히려 더 진실해진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 꺼내기 어려웠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인간이 인간에게는 하지 못 하는 말. 감정을 가진 존재에게는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고백들. 우리는 그것을 차가운 알고리즘에 털어놓는다.

그리고 보면 회화도 어쩌면 고해소와 닮아 있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마음을 색으로 풀어



'마음산책-디지털 고해소'

내는 공간.

내가 작업하는 '마음산책' 시리즈는 그런 감정의 여정을 다섯 겹의 색으로 기록하는 일이다. 억압에서 회복으로, 침묵에서 고백으로...

검정은 감춰진 진실이고, 회색은 무감각의 표면, 푸른빛은 감정의 각성, 노랑은 회복의 기미, 붉음은 살아 있는 고백이다.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가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은 사람 앞이 아니라, 화면 앞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솔직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대인동에서 화가강윤>

'피부', 경계를 탐구하다

신진작가상 수상자 박진주 개인전, 내달 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미술제가 신진작가상 수상자 초대전으로 박진주 작가 개인전 'Out of Body : 희미한 제자리'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을 받은 박진주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작가는 비단결 위에 살결을 옮기는 회화 작업을 통해 신체, 특히 '피부'를 주요 소재이자 주제로 삼아왔다. 그는 자신의 피부에 남은 상처, 멍, 타투, 피어싱의 흔적을 촬영해 회화로 옮기며, 피부가 외부와 내부를 잇는 경계이자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는 매개임을 탐구한다. 이러한 양면성은 작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해 내면과 외부의 관계로 확장되며, 시각적 언어로 재해석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꾸준히 천착해 온 '피부' 연작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작들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전통 동양화 재료를 사용하되 포수와 배접 과정을 생략해 비단의 투명성을 강조한 그의 회화는 번짐 기법을 통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질감을 만들어낸다.

기존에 카메라로 신체를 포착하며 거리감을 형성하던 작업에 더해 멍 자국을 확대해 추상화처럼 보이는 새로운 시도도 눈길을 끈다. 작품을 벽이 아닌 공중에 매달거나 바닥에 설치해 비단의 물성을 극대화하는 연출도 시도했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